

그 사람 지금은

(33) 정해숙 前 전교조위원장 <상>

전라도 역사이야기

-보성 특량

“공정한 교원평가 現 교육체제서는 어렵죠”

전국 교직원 노조 투쟁사의 산증인인 정해숙(72) 전 전교조위원장은 퇴임 이후 불교를 기조로 한 생명평화운동에 전념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맞서 교육 민주화운동을 이끌며 전교조의 싹을 키웠던 그가 생명평화운동을 통한 또 다른 참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정 전 위원장은 민주교육실현협의회(1986년)와 전국교사협의회(1987년) 등 수년간 교육 운동에 참여하며 1989년 전교조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천5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해지된 뒤에도 부단한 투쟁 끝에 전교조 합법화(1999년)를 이뤄냈다.

5.6대 전교조 위원장을 연임하면서 전교조의 기틀을 다졌으며, 해지 10년 만인 1999년에 광주기독교고로 복직하지만 교원정년이 단축되는 바람에 1년 만에 퇴직했다. 정 전 위원장은 현재 전교조 일선에서는 물러섰으며, 지도자문위원의 역할만을 맡고 있다.

후배 교사들로부터 전교조 투쟁의 역사로 불리 올 정도로 존경을 받고 있지만, 정작 그가 교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가정 형편에 따른 우연이었다고 한다.

광주 수창초등학교와 광주여중, 광주여고를 졸업한 그는 부친의 뜻에 따라 의사가 되기 위해 전남대 의대에 진학한다. 하지만 의대 본과 1학년을 다니던 중 학교를 그만두고 만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그만뒀다고 한다.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교사의 창의력 해칠 가능성 커”

자신의 성격이나 적성에 비해 교사가 합당하다고 생각한 그는 교사자격증을 따려고 교육청에 갔다가 자신이 이미 과학교사 자격이 있음을 알게 된다.

당시 교육청 직원이 전대 의대 예과 수료 내용을 보고 규정상 과학교사 자격이 자동 부여된다며 자격증을 발부해준 것이다.

1960년대 초반 해도 지방에 사범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여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원양성소 과정과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해 임용된 사람들이었다.

1961년 5·16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이 군에 가지 않은 남파 교사들을 데려 입대시키면서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수가 부족하게 된다.

이 때 정 전 위원장은 과학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수학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있다는 교육청 조항에 따라 수학교사 임용 시험에 지원, 34명이 응시해 10명을 뽑는 채용과정을 통과한다. 26세인 1961년부터 교직 생활을 시작한 그의 첫 부임지는 광주고등공민학교(중학교)였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송정중학교로 자리를 옮겨 수학과 영어 등 두 과목을 동시에 가르친다. 송정중에서 영어와 수학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원했던 탓에 의대 경력을



약력

- ▲1936년 광주 출생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6대 위원장
- ▲관현민주대상 수상(1999년)
- ▲성문사 신도회장
- ▲생명평화학교장
- ▲전교조 지도자문위원

이 있는 그가 영어에 능할 것으로 판단한 교육청이 발령을 낸 것이다.

“그때만 해도 교사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중학교 1학년생인데, 외국어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를 해당 교사가 아닌 수학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당시 교육 현실이었어요.”

그는 교사들에게 납부금을 걷게 하고, 교무실에서 각 반의 성적을 발표하며 우열을 가리는 분위기가 싫어 한사코 담임 교사를 맡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나중에는 사서 교사 강습을 받고, 그것이 인연이 돼 도서관협회 이사를 맡기도 했다.

교사 총원 자체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 전교조가 합법화



지난 1993년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서울 명동성당앞에서 전교조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하고 있는 정해숙(가운데) 전 전교조 위원장.

되고, 이제는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까지 시행하게 된 과정을 짚어보며,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주변에서 사회가 변한 만큼 교사도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시민단체 관계자나 각계 원로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건네는 이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교원평가는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어요. 평상시 교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방학 때 연수와 평가시험을 봐요. 이 같은 평가는 진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요. 이 모든 것이 교장의 직권입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교장에게 소신보다는 아부를 하게 되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직 거대화도 목표 의식 흔들려

전교조가 풀어야 할 과제”

교원평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현 교육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창의력과 소신있는 교육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를 거쳐 거대 조직화되면서 참교육 실현이라는 초심을 벗어나 조직 논리에 치우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답문을 열었다.

“전교조 조직이 커지면서 목적보다는 운영이 우선시되고 조직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자주 듣습니다. 맞는 지적이고 전교조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에는 군부독재와 참교육 투쟁이라는 목표가 명확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도부를 비롯해 전교조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에 대한 연수 등을 통해 조직의 근본 취지를 잃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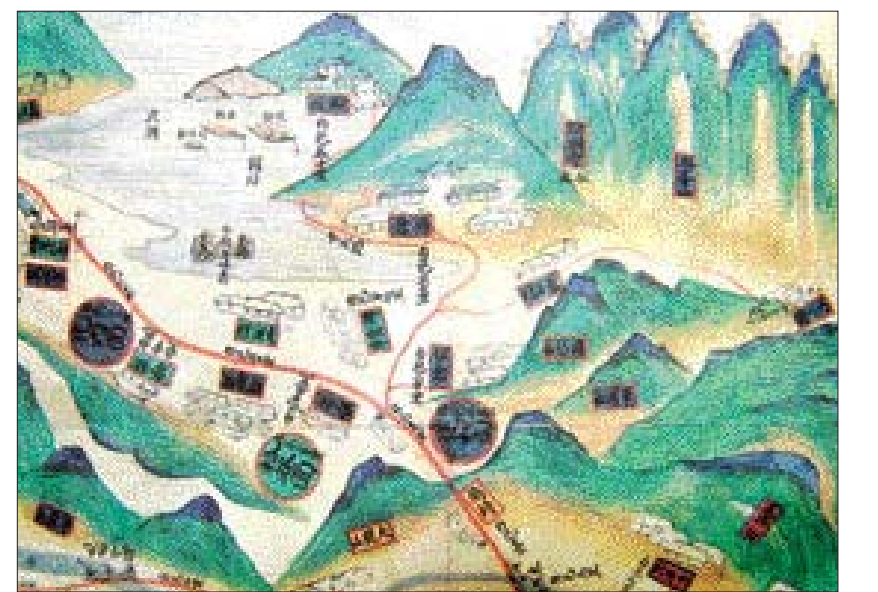
삼정리 쇠실 김구 선생 은둔처 비봉리 선소 공통알 껌질 발견

광주 효천역에서 무궁화호 열차를 탔다. 오전 11시45분 출발한 기차는 남평~화순~능주~보성을 경유하여 오후 1시 득량역에 도착했다. 송정리~순천 남선철도는 1922년 개설됐고, 경전선 순천~진주 간은 1968년 완공됐다.

미력 초당에서 그려져 터널을 나서면 득량 삼정리다. 고도가 급히 떨어진 골짜기 건너편에 김구선생이 1898년 은거했던 쇠실(深松·심송)이 보인다.

오봉산(284m) 북녘 까치내에 1930년 득량역이 문을 열면서 ‘역전취락’이 형성됐다. 1914년 송곡(松谷)·도촌(道村)면을 합해 득량면으로 칭하고, 면사무소를 박실에 두었다가 1945년 역전동인 오봉리로 옮겼다.

득량과 득량만은 해창 남서쪽 20여km 거리의 고흥 도양읍 서쪽 득량도(得糧島)에서 기원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식량을 구했다는 이 섬은 면적 1.93km, 해안선 6.5km 길이로 성재봉(223m)자락 관청·선창리에 66가구, 117명이 키조개를 채취하며 산다.



1872년께 보성지도 중 득량 해창 일대.

해령리 조양(朝陽)은 보성군 전세와 대동미를 선적했던 해창(海倉)포구로 유명했다. 동네 이귀 길과 좌우에는 석상승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우측 여자상은 ‘上元周將軍’, 길 건너 남자상은 ‘下元唐將軍’으로 문화재자료 제 55호다.

비봉리 선소(船所)는 수군이 주둔하고, 배를 짓는 터였다. 동네 앞 말(말)바우 위에 ‘공알바우’ 땅이름이 전해왔다. 바닷가에 1.5m규모로 8겹의 공통알 껌질이 중첩되어 있었다. 공통의 부화습성과 산란지 환경을 깰 수 있는 세계적인 공통알 등지로 가치가 커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 제 418호로 지정됐다.

방장산(536m) 줄기의 인암산(仁庵山)아래 강골(江谷) 마을이 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으로 죽송이 울창하고, 바닷물이 동네 앞까지 들어와 백로가 서식하니 비안낙(飛雁落黨)의 형국이다. 광주 이씨인 유번(惟蕃·1545~?)이 안씨 집에 장가 들어 정착한 뒤, 번성한 동네다. 1845년 이만진이 지은 열화정(悅話亭)을 비롯하여 이용옥·이석래·이금재 가족이 1984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됐다. 철길 따라 화염으로 소금을 제조했던 염장흔적이 ‘구가매떡’과 ‘평바다가마’같은 지명으로 남아있다.

득량만은 1930년대 득량 해창~조성~고흥 대서 간에 4.5km의 방조제가 축조되어 1천542정보의 농경지가 마련되고, 안심촌·중년동·신흥촌·보흥마을이 들어섰다. 결백 용산리에 땀을 축조하여 바늘골(針洞·침동) 산허리를 뚫어 삼정리 서적골 위에서 낙차를 이용 전기를 생산하고, 수로를 통해 간척평야를 관개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위원장)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써 한번 앞서주세요.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bepalar.co.kr

1588-8499 080-222-0100